

學校文法の 教育에 대한 몇 問題

李 忠 雨

(관동대 교수)

目 次

- | | |
|------------------|---------------------|
| I. 緒 言 | 3. 統一性 |
| II. 學校 文法 教育의 特性 | III. 文法教育과 語文規定 |
| 1. 規範性 | IV. 教師養成 教育課程과 文法教育 |
| 2. 實用性 | V. 結 語 |

I . 緒 言

국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에게 국어의 사용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어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앎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에 관한 지식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어 교사가 “언어에 관한 지식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언어에 관한 지식 내용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중·고등 학교의 언어 지식에 관한 교육은 문법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중·고등 학교의 문법 교육은 언어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문법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문법의 특성, 교육 과정, 교과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 . 學校 文法 教育의 特性

언어에는 다른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과 같이 일정한 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질서를 일반적으로 문법이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표준어의 문법이다. 이 규칙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길잡이가 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우리 사회 생활은 정상적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등 학교 문법, 1986:4).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은 표준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법이란 용어는 언어 이론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李秉鎭, 1987:278).

첫째, 문법은 언어를 완전히 기술하는 것이다. 이 관점의 문법은 음운론, 통사론, 어휘론, 의미론 등 언어의 모든 면을 포함한다.

둘째, 문법은 문법적 형태소, 어휘적 형태소의 기술, 그리고 형태소의 形(屈折)의 연구 및 語形成을 위하거나 文을 형성(통사론)하기 위한 형태소의 결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관점으로 음운론과 대립된다.

셋째, 문법은 어휘적 형태소(명사, 형용사, 동사, 양태의 부사 등)를 제외한 문법적 형태소(영어의 관사, 접속사, 전치사 등)만의 기술로서, 文中의 형태소의 기능을 지배하는 규칙의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통사론과 동일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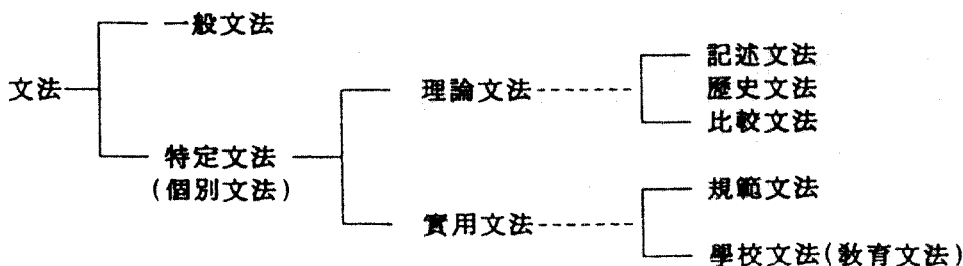
넷째, 생성언어학에서는 음(음성 표시)과 의미(의미 해석)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완전한 언어 능력의 모델을 문법이라고 본다.

학교 문법은 이들 가운데 첫째와 넷째를 포함한 즉, 언어의 모든면을 완전히 기술한 것에 바탕을 두고 규범을 정하여 이를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여 학습자가 이상적인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문법 교육이란 문법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학교 문법이란 문법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용 문법을 말한다. 따라서 엄격히 구분하자면 이들은 다른 것이지만 서로의 관련 때문에 함께 구분 없이 쓰일 뿐이다.

중·고등 학교의 문법은 첫째의 문법 개념대로 언어의 모든 면을 다룬다. 학교에서 다루는 국어 문법은 실용 문법으로 학문적인 일반 문법이나 이론 문법과는 다르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도 나타난다.

표 1. 문법의 분류



위와 같이 學校文法은 다른 문법과 구분되며 규범 문법과는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학교 문법이 갖는 특성은 규범성, 실용성, 통일성이다(李庸周, 1987 : 16).

1. 規範性

문법은 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규칙이고, 문법 교육은 이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라면, 문법 규칙은 규범성을 띠는 것이다. 규범성은 문법 교육에서 지나치게 절대시되어 왔다. 학교 문법은 언어 교육의 규범으로 이의 규범 규칙과 사용 금지의 규칙이 피교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지켜지도록 요구되었다(李庸周, 1987). 그러나 언어는 변하는 것이고 규범 또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학교 문법은 보수적이어서 언어 현실에 어긋난 규범을 강요하는 잘못이 많았다. 따라서 문법 교육에서의 규범성은 언어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 목표에 맞게, 지나친 보수성을 버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

2. 實用性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문법 교육은 실제 언어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 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 문법 능력이 의사 소통 능력에 쓰이려면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문법 교육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 문법 교육의 규범성은 보수성이 강하지만 이 실용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죽은 언어의 규범일 뿐이다. 문법 교육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실용성이 있어야만 한다.

3. 統一性

문법 교육이 교과서 집필자의 의견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문법 교과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규범성, 실용성도 잃게 된다. 따라서 문법 교육은 통일된 문법에 따라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법 이론은 실용성을 손상치 않는 범위에서 체계화하고, 자체 체계 안에서의 前後 관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론상 兩立되는 문제점은 체계 자체에 모순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이해도와 활용적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문법 이론이 교육되는 과정에서 규범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중. 고등 학교의 문법 교육의 개념은 교육 과정을 살펴 봄으로 알 수 있다. 문법 교육은 중학교에서는 '국어'에서 다루어지고, 고등 학교에서는 '국어'와 독립 과목인 '문법'에서 다루어진다. 중학교의 국어 교과 목표 중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히 사용하게 된다', 고등 학교 국어 교과 목표 중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가 특히 문법 교육과 관련이 있다. 독립된 교과목인 '문법'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目 標

국어 과목(특히 '언어' 영역)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 1) 현대 국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2) 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 3) 국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문법 교육의 목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의 문법은 넓은 의미로 國語學 강좌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교육은 언어 교육을 말한다든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론 문법이나 일반 문법과 달리 학교 문법은 다른 성격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단순한 '국어문법론', '국어문법' 등의 용어가 학교 문법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등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III. 文法教育과 語文規定

'grammar'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학교 문법에서 의미하는 바는 문법상의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을 논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인 문법관인 '언어 사용시 지켜야 할 言語 규범의 집합'과 현대적인 문법관인 '특정 個別 言語를 이용한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청자와 화자에게 內在되어 있는 체계'를 들 수 있으며, '문법상의 능력'이란 '한 언어로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言語內的 약속을 구사하는 能力'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尹希苑, 1988:12). 문법의 교육이 언어 구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로 語文規定의 熟知가 필요할 것이다. 어문 규정의 숙지를 위해서는 어문 규정의 용어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문법 교육은 국어의 분석적 이해가 중요(尹希苑, 1988:15)"하지만 관련

1) 文法教育은 언어 자료의 기계적인 분석이나 그 결과의 암기를 통한 소위 논리성 내

용어를 익히므로 대상 언어의 분석적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문법의 교육은 어문 규정의 용어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문법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문법을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에게 문법 용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면 문법 용어의 교육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문법의 교육은 용어 교육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이 얼마나 언어 규범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용어가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결과(교과서 부록은 교과서 어휘 조사에서 제외)를 분석하면 <표-1>과 같다.

<표-1> 표준어 규정 및 한글 맞춤법 용어의 교과서 반영

보기 : 초-국민 학교 중-중학교 고-고등 학교 문법-고등 학교 문법
 비교-*로 표시된 용어와 유사한 용어
 0-앞의 용어가 제일 먼저 나타난 교과서(문법은 나타난 용어)
 *-앞의 용어는 아니지만 관련된 용어가 나타난 교과서

용 어	초	중	고	문법	비고
' '역행동화					
가로쓰기		0			
가운뎃점(.)		0			
감탄	0				
감탄사		0			
감탄형 어미		*			감탄형
감탄형 종결 어미					
거센소리	0		0		
검낫표(「 」)					
검받침	0		0		
겹쳐 나는 소리					
고리점(.)					
고유 명사			0		
고유어		0			
고유어 계열					
관형격 기능			*	*	관형격
구				0	
기호					

지 분석적 사고력 신장을 표방하거나, 文法範疇의 표지의 암기, 혹은 인위적인 언어 자료에 적용시켜 보는 식에서 탈피하고, 국어 분석의 과정과 분석 결과로 나온 규칙의 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국어의 분석적 이해가 중요하다(尹希苑, 1988:15)

용 어	초	중	고	문법	비고
기호적인 구실					
긴소리	0			0	
끝모음		0			
끝소리	0				
끝음절					
낫표(「,」)					
내포		*			내포문
놀람					
느낌표(!)	0				
단모음			0	0	
단수 표준어					
단어		0		0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음절					
대괄호([])					
대등					
대응					
대표음					
덧나다	0				
덧붙다	0				
도치					
도치된 문장					
독립		0			독립어
되풀이					
된소리	0			0	
된소리되기					
두음 법칙			0		
드러냄표(顯在符)					
드러냄표(°, °)					
따온 말		*			따옴
따옴표<引用符>	0				
띄어쓰기	0				
마침표<終止符>					
명령문				0	
모음				0	
모점(ゝ)					
뫼음표					
뫼음표<括弧符>					
문맥상		*			문맥
문자		0			
문장	0				
문장 부호	0				

용 어	초	중	고	문법	비고
물결표(-)					
물음표(?)	0				
밑줄(<u> </u>)					
반어		0			
반점(,)	0				
받침	0				
받침소리	0				
발음	0				
발음 변화					
방언	0				
보조 용언				0	
복수 표준어					
본뜻		0			
본말	0				
본음					
부사		0		0	
붙임표(-)	0				
비문			0		
빗금(/)					
빠짐표(□)					
사동		*		0	사동사
사어(死語)					
사이시옷					
사전	0				
서수사				0	
서술		0			
서울말		0			
설명	0	0			
세로쓰기					
소괄호(())					
소표제					
속음(俗音)					
수사 의문(修辭疑問)		0			
숨김표(XX , OO)					
쉼표<休止符>		0			
시능말	*				흥내말. 의성어
실질형태소			0		
십진법					
쌍받침					
쌍점(:)					
안드러냄표<潛在符>					
양성모음				0	

용 어	초	중	고	문법	비고
어간		0		0	
어간 말음					
어감				0	
어구		0			
어말				*	어말어미
어미		0			
어법	0				
어원			0		
어원 의식					
어원적					
어휘 선택		*			어휘
연결형					
연대					
연음					
열거하는 말		*			열거하다
예사소리	0			0	
온점(.)	0				
외래어	0				
외래어 표기법					
용도					
용언		0		0	
용언 어간					
원어					
음가					
음성모음				0	
음절	0			0	
의문형 어미					
의존 명사				0	
이음표<連結符>					
이중모음			0	0	
인용	0				
자릿점(수의-)					
자모		0			
자모 순서		*			자모순
자모 스물넉 자의 이름					
자음		0		0	
자음 동화				0	
작은따옴표(' ')	0				
전문 용어				*	전문어
절(節)				0	
접두사		0		0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			접두사

용 어	초	중	고	문법	비고
접미사		0		0	
제시어					
조사		0		0	
종결형				*	종결형 조사
종속적 관계				*	종속적 종결 어미
주석					
준말	0				
줄임표(.....)	0				
줄표(-)			0		
중괄호 ({ })					
첫머리	0				
첫소리	0				
첫음절					
청유					
청유문				0	
체언			0	0	
큰따옴표(" ")	0				
표시 문자		*			표시
표어			0		
표제어		0			
표준 발음법	*				표준 발음
표준어	0				
표준어 사정 원칙			*		표준어 사정의 원칙
품사		0		0	
피동		*		0	피동사
한자	0			0	
한자어	0				
한자어 계열					
한자음		0			
합성 동사					
합성어				0	
형태		*			형태소
호칭어					
훈반침					
활용	0			0	
활용형		0			

'표-1'에 의하면 국민 학교에서 기본적인 어문 규정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중학교 교육을 받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어문 규정을 가르칠 때 국민 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문 규정 용어를 숙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민 학교에서 대다수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용어를 배우고 중학교에서 이의 반복 심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문 규정 용어는 전체의 반에 불과하다. 어문 규정 용어가 중학교까지의 교육에서 모두 교육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이들 용어가 半數나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등 학교 '국어'와 '문법'에 나타난 어문 규정 용어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용어 중 대다수가 빠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고등 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기본적인 어문 규정인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대학에서 이들 규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대다수의 대학 교양 국어에서 대학생에게 어문 규정을 교육하지 않는다고 볼 때)을 생각하면 적어도 고등 학교에선 어문 규정 용어가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고등 학교의 국어과 교과서 뒤에 부록으로 이들 규정이 실려 있으니 이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부록은 참고용이지 공부 시간에 모두 교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규정이 교과서의 독립 단원으로 제시되거나 기타 단원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학생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어문 규정의 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루어지고, 고등 학교에서 심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어문 규정 용어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용어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국민 학교에서 쓰는 '흥내말'은 어문 규정에서는 '시늉말'로, 고등 학교 '국어'와 '문법'에서는 '의성어'로, 또 국민 학교 다른 부분에서는 '소리를 흥내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문장 부호를 나타내는 용어를 보면 어문규정에서는 '뫼음표(括弧符)'를 '대괄호([])', '중괄호({ })', '소괄호(())'로 구분하지만 학교에서는 '소괄호(())'를 그냥 '괄호'로 부른다.

국민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용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언어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 바람직하겠지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려워질 때, 어문 규정의 용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다른 말)를 사용한다면 훗날 이를 배운 학생들의 언어 생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익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언어를 가르치려면 언어와 관계된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언어와 관계된 용어의 습득도 필요한 것이다.

IV. 教師養成 教育課程과 文法教育

중등 학교 국어과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대학 교육 과정에 "언어에 관한 지식"과

“언어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교육할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言語學과 國語學에 관한 강좌와 국어교육 관련 강좌가 해당된다. 문법은 문법의 목적에 따라 기술이 달라진다. 중·고등 학교의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문법의 기술과 중·고등 학교 학생에게 문법을 가르칠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문법은 기술의 차이가 날 것이다. 또한 문법학자를 위한 문법의 기술은 앞의 경우와 차이가 있고,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대학 이상의 학생)을 위한 기술도 또한 다르다. 이는 문법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문법의 목표에 맞게 기술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국어문법 강좌와 국어교육과의 교육국문법 강좌는 목표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다. 국어문법 강좌는 언어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고 교육국문법 강좌는 언어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교육과의 교육국문법 강좌는 필수적인 강좌다.

현행 국어교육과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지어 문법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대학의 국어교육과(국립 12, 사립 17) 가운데 20 학교만 조사됨).

教育國文法: 한국고원대

國語文法指導論: 경남대

文法教育: 인하대

文法教育論: 서울대, 고려대, 경상대, 한양대, 한남대

學校文法論: 영남대, 전주대, 전북대

이들이 목표하는 바는 강좌명의 차이만큼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론 문법이 아닌 학교 문법을 강의하기 위한 강좌임은 틀림없다. 尹希苑(1988)은 文法教育講座 模型開發을 위한 研究로, 學校文法の 教育을 위해 어떤 강의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런 논의를 통해 이론 문법과는 다른 학교 문법의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법 교육과 관계된 강좌에 대한 교수 요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文法教育을 위한 教師教育은, 다른 영역의 教師教育과 마찬가지로, 教育內容에 관한 부분과 教育方法에 관한 부분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教育內容에 관한 부분이라 함은, 學校文法을 중심으로 국어에 대한 理論的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것이고, 教育方法이라 함은 앞의 教育內容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훈련을 말한다(尹希苑, 1988: 18).

학교문법과 문법지도론(윤희원, 1985:429) : 현행 학교 문법의 내용과 원리를 파악하고 학교 문법의 규범 문법으로서의 성격과 학문 문법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문법 교육은 물론 나아가서는 보다 합리적인 학교 문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다.

문법교육론(한양대) : 국어의 학교 문법을 국어에 관한 여러 문법 이론과 대비하여 검토하고 토론 및 연구함으로써 국어의 학교 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게 한다.

文法教育論(석사과정;李應百, 丘仁煥, 李庸周, 1988:16) : “문법이란 무엇인가?”, “학자들이 제안하는 문법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학교에서 문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문법을 지도하여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하는가?, 현재의 문법 교육은 올바른가?,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 (표현과 이해)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 강좌의 중요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자료로서 학생들은 외국에서의 문법 교육(구체적으로는 언어학과 언어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읽게 될 것이다.

위 문법교육 강좌 교수 요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이론 문법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의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있는 이유는 교육 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과 교육에 대한 연구 부족 때문이다. 즉, 教科教育科의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점 가운데 ‘교직 이론 교과와 보통 전공이라 불리는 교과의 교육이 중등 학교 교육과는 무관하게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유능한 교사 양성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과 ‘교직 교과와 소위 전공 교과가 서로 무관하게 지도되고 있어 이 두 영역의 교과를 재구성하여 교과교육을 개발하는 임무가 응용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는 점(李和國, 1988:87)이 ‘국어문법’만을 교육하고 ‘문법교육론’을 교육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문법교육’과 관련된 대학 교재나 단행본이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V. 結 語

학교의 문법 교육은 교육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문법 교육’과 ‘교육 문법의 교육’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고등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한만큼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 국어교육과의 문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언어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비합리적이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언어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곧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지

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어문 규정의 숙지를 위하여 어문 규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문 규정의 용어를 가르쳐서 국어의 규범을 구조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중학교 교육에서 이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고, 고등 학교에서 심화 학습되어야 한다.

문법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문법에 대한 인식과 어문 규정의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에 충분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參考 文獻 >

고영근, 남기심,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탐출판사.
 국어연구소, 1984, 학교 문법 교과서의 변천 과정, 국어생활 창간호:13-29.
 _____, 198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金亨奎 外, 1984,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검토본)에 대한 좌담회, 국어생활창간호:13-29.
 李光政, 1987, 國語 品詞 分類의 歷史的 研究, 한신문화사.
 李吉麗, 1974, 學校文法體系論 -學校文法體系의 問題點과 그 試案-, 국어교육 22:97-141.
 李秉鎭, 1981, 文法教育論 -初, 中學校 文法教育을 中心으로 하여-, 국어교육연구회 論文集 21.
 _____, 1987, 言語 知識 指導, 李庸周 外, 國語科教育(II):277-299, 韓國放送通信大學 出版部.
 李庸周, 1979, 教育을 위한 國語文法 記述의 統一에 대하여, 국어교육35:127-142.
 _____, 1986, 初, 中, 高校에서의 言語知識 教育, 韓國教育開發院, 제 5 차 국어과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 論文集.
 _____, 1987, 言語 教育의 方法, 李庸周 外, 國語科教育(II):13-24, 韓國放送通信大學 出版部.
 _____, 1988, 國語科 教科書 二題, 국어교육 63·64:153-162.
 李仁燮, 1969, 學校文法論,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1.
 李喆洙, 1985, 學校文法の 性格, 국어교육 53·54:431-438.
 李忠雨, 1989, 中等學校 國語科 教師 養成에 관한 研究, 국어교육 65·66:55-73.
 _____, 1990, 文法教育論, 江原道 敎員 研修院, 中等 1正 資格 研修 敎材 -國語科- :153-162

李浩盛, 1947, 민주주의 국어 교수법 강화, 문교사.

李和國, 1988, 敎員敎育에서의 敎科敎育 실태와 개선 방안(上), 韓國大學敎育協議會
大學敎育 32.

徐德鉉, 1988, 學校文法에 대하여, 미발표 논문.

尹希苑, 1985, 國語敎育科의 커리큘럼 構想, 국어교육 51 . 52:423-434.

_____, 1988, 文法敎育講座 模型開發을 위한 研究, 韓國國語敎育研究會論文集 33:1-46.

崔昌烈, 1985, 中等學校 國語科敎師 養成을 위한 敎科敎育의 實態와 展望, 국어교
육 53 . 54:411-4420.

5차 국민 학교 . 중학교 . 고등 학교 국어과 敎育 과정 및 敎과서.

각 대학 학교요람.